



# 터널의 한 가운데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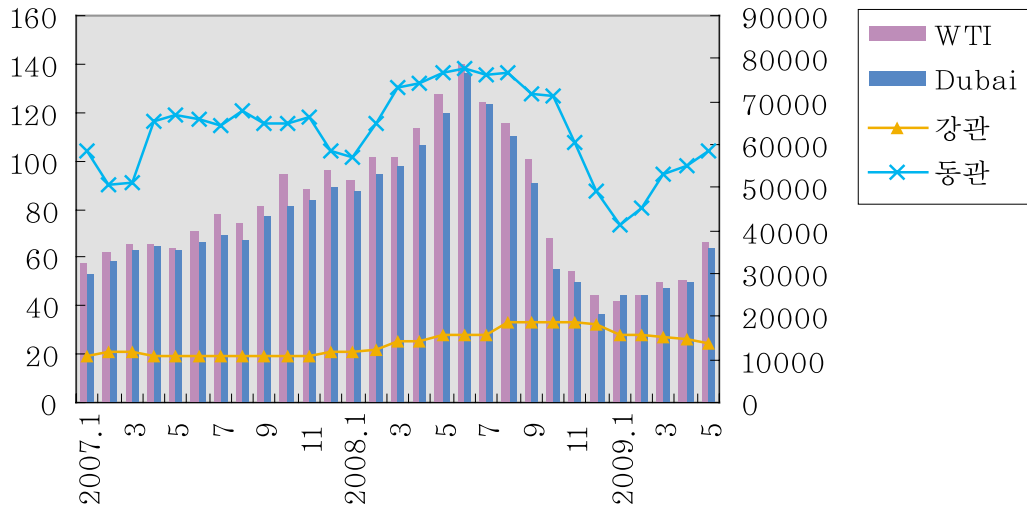
김현회 / 원켄네트웍스 사업총괄본부장

올해도 벌써 반이 지나갔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됐다. 가장 어려울 것이라는 해의 반을 보냈으니 다소 안심이 되기도 하지만 더 힘에 부칠 것 같은 하반기를 생각하면 갑자기 아득해진다. 특히 토목이 아닌 건축에 기반을 둔 우리 설비업계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하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국가 재정 지출의 대부분이 토목에 편중되어 있고, 달러 가치 하락, 국제 투기 세력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값은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터널의 한 가운데가 가장 어둡다. 그래서 가장 포기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앞으로 나아 갈수록 밝아 올 것이다. 다시 한번 허리끈을 질끈 동여 매고 마음을 다잡아 전진해야겠다.

## 6월 자재 동향

자재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달러 약세로 인하여 투기 자본이 원자재로 유입되며 원자재 가격의 인상을 부추기고 있음</li> <li>- 설비 자재 가격도 당분간 인상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li> </ul>
동관 및 연관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관 및 동 관련 제품들의 가격 인상폭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li> </ul>
STS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테인레스 코일의 가격 인상으로 인하여 관련 제품인 파이프, 부속, 후렌지 등의 가격 인상 예상됨</li> </ul>
구매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및 스테인레스 관련 제품들은 조만간 가격 인상이 예견되는 만큼 그 전에 서둘러 구매 하는 것이 바람직함</li> <li>- 건설 경기 악화로 자재 수요가 많이 줄어 원자재 가격 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재의 경우 제조사, 대리점별 경쟁으로 가격이 인하되고 있음</li> <li>- 경쟁 입찰 및 비교 견적을 통해 가격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유리함</li> </ul>



▲ (07~09년 유가 및 강관/동관 변동 추이, 자료 : 원켄네트웍스, 2009년 6월)

140달러까지 치솟았던 유가가 40달러 아래까지 급전직하하더니 최근에 다시 60달러 선을 회복하였다. 골드만삭스 등 몇몇 금융기관과 뉴욕대 누리엘 루비니 교수 등 대표적 비관론자들은 유가가 다시 100달러 선에 육박할 것이라며 더블 딥 등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우리 설비건설 업계는 국제 유가 등 원자재에 민감할 수 밖에 없어 이번에 국제 유가와 대표적 자재와의 상관 관계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 보았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유가는 등락의 흐름을 명확히 보이고 있고 동관은 계절적 영향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유가와 거의 동조를 하며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 강관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유가의 변화에 둔감한 것을 볼 수 있다. 동관은 수입 원료의 가격이 바로 반영되는 반면 강관의 경우는 국내 생산 원료의 사용 등으로 간접 영향권에 있는 이유일 것이다. 따라서 동관의 경우에는 국제 유가 전망에 촉각을 세우고 여기에 계절적 수요를 감안하여 구매 결정

을 하면 될 것이고 강관의 경우는 경기에 따른 수요와 계절적 요인을 결합하여 구매에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

김현회(金炫會) 총괄본부장 프로필



- 現 원켄네트웍스 (구 설비넷) 사업총괄본부장
-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졸(91년)
- 삼성그룹 공채 입사(91년, 삼성화재 발령)
- 홍보실 근무(사보, 사장단 연설문 작성, 사내방송PD, 언론·인터넷 담당 등)
- 삼성그룹디자인연구원 멀티미디어학과 및 UCLA Extention(뉴미디어, 스토리텔링 등) 과정 수료
- 시장개발 및 영업기획 업무 담당(PDA영업, 리플렛 기획 등)
- 인터넷사업팀 근무(삼성화재 전국에니카서비스망 구축, 전사 인터넷사업 기획 운영 등)